광주시 경기도와 손잡고 AI 육성 속도낸다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 창립 이어 경기도와 업무협약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산업(AI)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을 창립한데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집적화를 이룬 경기도와 성공적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 창립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HUB CITY GWANGJU’ 비전을 제시했다.

포럼은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전 총장이 의장을 맡고, 문 의장을 포함해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용훈 KAIST 교수, 곽재원 가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게 된다.

또한, 조환익 녹현리서치 대표, 김문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창한 한국기계학회 부회장, 제임스 랜디 물릭 뉴욕주립대 공대학장, 김병기 광주전남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고문을 맡았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인공지능의 이슈와 트렌드를 심층 분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AI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별 인공지능 혁신사례를 공유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광주가 선진 국가와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는 판단 아래 세계를 상대로 ‘지능형 경제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세계 유래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킨 것처럼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다”면서 “AI 4대강국 대한민국 비전과 추진전략, AI HUB CITY 광주의 역할이 하루빨리 발표되고 범 국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간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지원 및 협력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업지원 협력 ▲인공지능 포럼 등 행사 개최 및 기타 업무협력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운영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상호협력 해나갈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문화 앞세우더니 문화계 우롱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문화 경력 전무 조인철 내정

오는 30일 퇴직 예정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후임으로 조인철(영광·55)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이 내정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문화수도 광주’ 육성 공약을 놓아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을 내걸고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밝혔으나, 문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예산·경제통 인사를 이 부시장 후임자로 낙점하는 등 번번이 문화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30일 퇴임하는 이 부시장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인철씨가 내정됐다. 광주시는 조 내정자 취임식을 30일 오후로 예정하고 있다.

광주 서석고 출신의 조 내정자는 고려대 문학과, 같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40회) 합격 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예산실, 성과관리본부, 국무총리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재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등에서 예산 및 경제관련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 시장이 차기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경제·예산통 관료를 낙점하면서 광주 문화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이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문화수도 광주 컬처 유토피아’라는 공약 아래 ‘문화경제부시장직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광주를 문화가 일상이 되고 먹거리가 되는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문화를 홀대하는 듯한 행보를 꾸준히 보였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개방형 직위인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자리에 시청 행정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지역문화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퇴임하는 이 부시장 역시 광주형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 내정자가 기재부에 주로 근무했으나 문화예산 관련 경력이 있고 문화계 인맥도 넓다. 문화 홀대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광모듈 상용화 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광주시가 투자한 광통신 핵심부품인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억5000만원 등 총 77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지역의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26개 광통신 부품을 개발해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광주시는 2019년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능정보네트워크용 광통신 상용화 실증 확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치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지역 광통신 부품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고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광융합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내년 해양쓰레기 처리 512억 쓴다

전국 수거량의 37% 차지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등 건의 수거 국고보조 70%로 상향도

전남도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5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3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2020년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을 512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총 8만6000t 가운데 전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3만2000t으로 전체 수거량의 37%를 차지했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거량을 차지한 이유는 해안선 길이가 6743㎞로 전국 45%를 차지하고, 유인도서는 276개소로 전체 유인도서(470개)의 5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남도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을 확대해 수거량을 늘려나간 것도 한 원인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2020년 521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는 전년보다 396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3개 시·군),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3척, 권역별 해양쓰레기 전(前) 처리시설 2개소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해양쓰레기는 조류나 계절풍에 의해 국가 간, 지역 간 이동하고 수거하는 해양쓰레기의 90%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만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수거처리예산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재원도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남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및 수거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전남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SNS 홍보 강화 담당 공무원 연찬회

전남도는 23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SNS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이날 연찬회에는 도와 시군의 SNS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 SNS 홍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블로그 기자단과의 취재자료 공유 등 효율적 홍보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수도권 방송국과 공공기관에서 홍보와 취재 담당자들을 강사로 초청, ‘SNS 취재장비 시연 및 실습’, ‘우수 홍보사례’,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전남도는 강의자료 외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전문 서적을 제공해 지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